

다중적 소수자의 새로운 집짓기: 어머니의 집에서 다름의 회당까지

배경민

오드리 로드(Audre Lorde)는 그녀의 자전적 소설 『자미』(*Zami: A New Spelling of My Name*)를 “신화적 자서전”(Biomythography)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명명한다. 『자미』에서 작가는 흑인, 여성, 레즈비언, 이민자 2세, 시각장애인 등 자신을 이루는 다양한 정체성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특히 그녀가 여성들과 맺어온 관계에 주목하여 서술해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고향인 카리아코(Carriacou)의 유산은 작품의 서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활용된다. 비록 카리아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작품의 초반과 후반에서만 언급되고 있지만 그것은 그녀가 레즈비언으로서 다른 여성들과 협력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구성하는 기반으로써 강렬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친구이자 연인으로서 함께 일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카리아코어”(A Carriacou name for women who work together as friends and lovers; 255)인 “자미”를 로드가 작품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 자전적 소설은 그녀가 “자미”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자신과 어머니의 기억을 더듬어감으로써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자미로 재창조하는 과정은 로드 자신이 다양한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얻은 경험, 그리고 그녀가 “어머니의 입으로부터” 배운 카리아코의 유산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할렘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부터 뛰어나간 뒤로 여러 장소를 전전하는 로드이지만, 그녀에게 카리아코는 부모님의 경우에서처럼 잃어버린 뿌리,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서 고향(homeland)이 아니라 역으로 그녀가 어디에서든 뿌리를 내리

고 “다름의 회당”(house of difference)을 지향하도록 하는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부모님에게 카리아코가 가지는 집(home)으로서의 의미는 로드가 카리아코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번역해냄으로써 성취하는 다름의 회당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로드가 스스로에게 “자미”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녀가 카리아코를, 그리고 나아가 고향을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재전유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로드에게 집이란 단일한 질서로만 구성되는 일괄적인 귀향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정신적, 물리적 지지를 공유하는 발판이다. 집은 고정된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해당 장소와 결부된 경험, 그리고 그곳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 얼마든지 새로이 형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로드가 집에 대해 취하는 자세는 이주민, 혹은 디아스포라들이 집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도, 나아가 포티어(Anne-Marie Fortier)와 신필드(Alan Sinfield)와 같은 학자들이 전개하는 퀴어 디아스포라론에서 퀴어 디아스포라들이 집과 맺는 관계와도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우선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자미』를 살펴보자. 카리아코로부터 이주해온 로드의 부모님은 비록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카리아코를 자신들의 진정한 집으로 여긴다. 부모님에게 미국에서의 체류를 일시적인 것,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치부되며, 그들은 할렘에서의 생활이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카리아코는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픈 고향이며 노스텔지어의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님에게 미국에서의 생활은 자신이 갖들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전쟁의 현장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역세고 강인한 생활력과 노동에 대한 작가의 묘사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브라(Brah)가 논의하는 디아스포라의 “집짓기 욕구”(homing desire; 180)를 읽어낼 수 있다. 인적으로, 그리고 물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게 해 주고 소속감을 제공하는 환경을 확보하려고 하는 집짓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타지에서 고독하고 강도 높은 노동을 감행해낸다. 그렇게 얻어내고 유지되는 할렘의 집은 단 하나의 질서(only one way of doing things)를 통해 운행되고 통제되고 있으며, 그러한 질서의 담지자이자 집행자는 바로 로드의 어머니이다. 집은 부모님이 일구어낸 정착의 귀한 표지이며, 집 안에서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권위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 여겨진다. 고향에 대한 맹목적인 향수, 그리고

정착지에 집을 만들기 위한 투신과 욕망 모두에서 보이듯 디아스포라들이 집(home, homeland)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일방향적이고 단선적이다. 로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독재적이기도 하다.

다른 한 편 퀴어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90년대에서는 흥미롭게도 퀴어 존재를 디아스포라와 비교분석하는 퀴어 디아스포라론이 전개되기도 했다. 비록 『자미』는 퀴어 이론이 무성하던 90년대와 약 20년의 시간차(작품 내 시간으로는 약 40년의 시간차)를 두고 선행해있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그녀가 집으로서의 다양한 공간들을 다루는 방식은 특히 포티어와 신필드의 논의들과 공명하며 집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들을 던져주고 있다. 신필드는 퀴어와 디아스포라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집은 당신이 향하는 곳이지, 당신이 출발한 곳이 아니다’, 폴 모넷의 소설 『집으로의 중도』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사실 레즈비언과 게이들에게 분리와 상실이라는 디아스포라적인 감각은 우리의 하위문화에 응집의 원칙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편안하게’(at home) 느끼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이성애적인) 문화의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인지도 모른다. 흩어지는 대신, 우리는 모인다.

‘Home is the place you go to, not the place you came from’, it says at the end of Paule Monette’s novel, *Half-way Home*. In fact, for lesbians and gay men the diasporic sense of separation and loss, so far from affording a principle of coherence for our subcultures, may actually attach to aspects of the (heterosexual) culture of our childhood, where we are no longer ‘at home’. Instead of dispersing, we assemble. (280)

위의 논의에서 퀴어들은 이성애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혹은 추방당한 존재로서 디아스포라와 비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와 상실이 일어나는 유년기의 집은 디아스포라와 달리 퀴어들에게는 귀환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규범적인 이성애주의의 골격 너머에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데에 겪는 어려움”(the difficulty we experience in envisioning ourselves beyond the framework of normative heterosexism; 280)으로 말미암아 유년의 집을 뛰쳐나오는 존재들이며, 그렇기에 아직 한 번도 집을 가져보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레즈비언과 게이들은 창발의 순간에 간

혀있다.”(lesbians and gay men are stuck at the moment of emergence; 280) 그렇기에 디아스포라들과 달리 집은 그들에게 귀향의 공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유년, 추방당한 과거, 그리고 공포이면서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다.

신필드의 퀴어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한편으로 “집”의 위상을 출발점이나 기원이 아닌 도착점으로 돌려놓고 있다. 이성애중심적인 공간에서 탄생하는 퀴어들은 집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우연히 창발하는 존재들이며, 스스로를 레즈비언 혹은 게이로 정체화해감에 따라 점점 자신이 집에 온전히 소속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집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갈구해 마지않는 공간이다. 이러한 논조 속에서 집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공간,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공간으로 환상화된다. 이러한 논의는 한편으로 퀴어들이 이성애적인 집의 공간에서 경험하는 배척과 폭력의 경험을 예리하게 꼬집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디아스포라적인 분리과 상실을 경험하는 퀴어들이 집을 재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포티어는 이에 반해 집을 움직임(movement)속에 있는 것, 장소와 특정한 몸에 결부되어서 생성하는 것으로 재정의하고 있는데(‘Home’ is attached to place and to a particular body; 414), 이는 로드가 소설에서 집을 다루는 방식과도 많은 연관성을 지닌다.

부모님과 달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로드에게 카리아코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상의 공간,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곳이다. 작품 내에서 로드는 멕시코에서의 약 2년간의 체류를 제외하면 평생을 미국에서 보내며, 카리아코를 실제로 방문하려는 시도는 단 한번도 하지 않는다. 로드에게는 오히려 미국이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는 지반이며, 카리아코는 그것의 존재 여부조차도 의심되는 “마법”과 같은 공간, “사적인 낙원”과 같은 곳이다(14). 이런 견지에서 로드의 아래 서술은 집에 대해 그녀가 취하는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한때 집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한 번도 가 본적은 없지만 엄마의 입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장소였다 . . . 바로 지금, 여기는 공간(space), 일시적인 체류였으며 영속적이거나 완전한 구속력을 지니거나 자신을 정의해

주는 것으로는 결코 간주되지 않았다 . . . 언젠가 우리는 집이라는 그 달콤한 장소(place)에 다시금 다다를 것이었다.

Once *home* was a far way off, a place I had never been to but knew well out of my mother's mouth . . . This now, here, was a space, some temporary abode, never to be considered forever nor totally binding nor defining, . . . someday we would arrive back in the sweet place, back *home*. (13)

맨 처음에 등장하는 집은 부모님에게 카리아코가 지니는 디아스포라적 의미의 집이다. 그러나 부모님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를 목격하면서 성장한 그녀의 이민자 2세로서의 경험은 로드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을 “영원히 지속되는 곳, 자신을 정의하며 온전한 구속력을 지니는 공간”으로 당연시하지 않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어준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카리아코도, 나아가 미국도 절대적인 의미의 집으로 정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로드는 이러한 이민자 2세로서의 경험을 자신의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발판으로 적극 활용한다. 그녀는 비록 다중적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에 대해서는 성토했지만, 부모님 슬하에서 자신의 레즈비어니즘이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배척되는 구도로 자신의 유년을 재구성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카리아코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으로부터 성인이 된 자신의 자아를 배태하고 있는 요소들을 모색한다. 그녀에게 집은 강렬한 향수를 유발하는 대상이 아니며, 고정된 물리적 장소도 아니고 무엇보다 상실과 동경의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그녀가 기억의 해석을 통해 재전유하는 것이며, 모계로부터 내려오는 집의 이미지는 그녀가 새로운 집 개념을 확립하는 신화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된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로드는 흑인, 여성, 동성애자로 살고 있는 자신의 현재를 설명해주는 기원, 자기 존재의 씨앗을 기억의 적극적인 번역을 통해 모색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주는 카리아코 이야기는 그녀의 근원 탐색 과정에서 중요한 소재이다.

어린 시절에 나는 항상 어머니가 내가 아는 다른 여성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간에, 다른 여성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달랐는가? . . .

나는 결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오늘날까지도 주변에 항상 흑인 다이크들—강인하고 성적으로 여성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이 존재해왔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이다. 그 당사자들은 스스로에게 그러한 이름을 붙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라고 여겼을 테지만. 그 당사자에는 우리 엄마도 포함된다.

As a child, I always knew my mother was different from the other women I knew, Black or white. But different how? . . . I never knew. But that is why to this day I believe that there have always been Black dykes around—in the sense of powerful and women-oriented women—who would rather have died than use that name for themselves. And that includes my momma. (15)

로드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어떤 여성들과도 다른 인물이었음을 여러 번 서술한다. 작가의 어머니는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흑인 이민자로서 가족을 꾸리고 생존해나가기 위한 강한 생활력을 보이는 인물인데, 로드스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강인하고 성적으로 여성을 지향”하는 “흑인 다이크”의 모습을 읽어낸다. 물론 어머니가 “스스로에게 그러한 이름을 붙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라고 여겼”으리라는 구절에서는 자신의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 적대적인 어머니의 태도와 그로부터 시인이 느끼는 긴장감을 읽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로드스는 어머니를 자신의 “자미”로서의 정체성이 탄생한 중요한 지반으로 여기고 있다. 나아가 그녀는 스미스(Barbara Smith)가 지적하듯 “자신의 레즈비어니즘을 그녀의 흑인성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것,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필요 없는 객관적 사실로 간주한다.”(Lorde assumes that her Lesbianism, like her Blackness, is a given, a fact of life which she has neither to justify nor explain; 123) 이는 스미스가 지적하듯 로드스의 서사가 다른 퀴어 문학과 보이는 중요한 차이이기도 한데, 자신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어려움들, 호모포비아, 고립과 같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로드스가 자신의 레즈비어니즘을 그 자체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자미』의 서사가 보이는 특질이다(123). 문제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의 호모섹슈얼리티로부터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자 하는 건강한 태도는 그녀가 자기 정체성의 근원을 어머니, 할머니로 이어지는 카리아코의 모계 족보에서 모색하는 데서 보이는 스스로에 대한 뿌리 깊은

긍정의 태도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로드는 자신의 어머니의 다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만약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의 어머니와 같았다면 어쩌면 그들이 나를 더 좋아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녀의 다름은 계절이나 추운 날이나 유월의 찌는 듯한 밤과 같았다. 그것은 그냥 그런 것이었으며, 어떠한 설명이나 재현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If my mother were like everybody else's maybe they would like me better. But most often, her difference was like the season or a cold day or a steamy night in June. It just was, with no explanation or evocation necessary*; 16) 로드가 이민자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다름을 자연현상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듯, 그녀에게는 귀어함 역시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그저 존재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자연 현상과 같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계로 이어지는 문화적 근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 곳[카리아코]에서는 다른 여성과 함께 누워있고 싶은 욕망이 어머니의 피로부터 물려받는 충동이라고 말한다”(There it is said that the desire to lie with other women is a drive from the mother's blood; 256)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로드가 어머니의 문화인 카리아코를 어떻게 자신의 흑인 레즈비언 서사에 힘을 실어주는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위의 발췌문에서도 드러나 있듯, 모계와 카리아코로부터 레즈비언리즘의 근원을 찾는 작업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로드 스스로도 적어놓았듯 자신을 자미로 재창조하는 작업은 적어도 할렘에 있는 현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로드의 어머니는 “그녀로부터의 어떤 종류의 단독 행동도 당신의 권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My mother viewed any act of separation from her as an indictment of her authority; 83) 독재자와 같은 인물로 묘사된다. 어머니의 일괄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집에 살면서 로드는 “자주 집이라는 지옥 속에서 죽고 깨어나는 듯한 느낌”(I often felt that I had died and wakened up in a hell called home; 83)에 시달려야 한다. 어머니는 모든 일이 처리되는 방식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부터 어떠한 이탈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칙에 이성애중심주의도 포함되어있음은 물론이다. 비록 성적 지향성을 직접적인 화두로 삼으며 서술자가 부모님과 반목하는 장면은 소설 속에 등장하지

않지만, 로드가 처음으로 사랑한 여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니(Gennie)와의 관계가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로드가 마침내 집을 떠나는 데에 “아버지가 제니를 폄하하는 발언들”(The precipitating factors in my leaving home were some disparaging remarks my father made about Gennie; 104)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집 안의 단일한 이성애중심적 질서가 그녀의 숨통을 죄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로드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과 긴장감은 모르타르 썬에서 보다 상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로드가 첫 월경을 시작한 날 어머니는 기념의 의미로 딸이 평소에 좋아하는 소스(souse)라는 카리아코 음식을 만들어 주기로 한다. 평소에 소스를 만들 때 모르타르라는 전통 절구로 마늘 빵기를 즐겨 했던 로드는 차를 사러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어머니의 부엌에서, 홀로 다리 사이에 모르타르를 끼고 마늘을 빵기 시작한다. 첫 월경, 다리 사이의 절구공이처럼 성적인 암시로 충만한 이 장면에서 로드는 어머니가 시범을 보여주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마늘을 빵는 대신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르타르에서 향신료를 짓이기는 일련의 과정들을 천천히 음미한다. 어머니의 질서가 지배하는 부엌 속에서도 어린 로드는 카리아코산 절구로 전통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집은 가능성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제약의 공간이다(Bolaki, 788).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그녀가 “음식을 가지고 놀고 있다”(playing with the food)고 꾸짖으며 모르타르를 뺏어들고 “오래되고 익숙한 방식으로”(in the old familiar way)로 마늘 빵기 작업을 마무리한다.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로드는 “어머니의 부엌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해내는 오직 한 가지의 옳은 방법만이 존재한다”(in my mother's kitchen there was only one right way to do anything; 80)는 것을 깨달으며 스스로도 예기치 못한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의 절구질이 첫 월경을 시작하는 딸을 강제된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상징한다면 로드의 저항과 눈물은 남성에게 의해 정의되지 않는 여성의 성, 그리고 레즈비어니즘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그녀의 의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로드가 레즈비어니즘의 근원 모계, 그리고 카리아코로부터 모색하는 것은

이성애중심적, 남성중심적인 섹슈얼리티가 강조되는 할렘,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그녀가 자신의 집을 되찾고 어머니와의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모르타르 씬에서도 드러나듯, 로드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이성애중심적인 규범이 팽배하는 유년의 집에서도 그녀의 레즈비언리즘이 움틀 수 있었던 계기들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후에 디아스포라 퀴어 논의에서 집을 동성애자에게 적대적인 공간으로 표상하는 것과 달리 집을 퀴어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공간, 나아가 그녀에게 근원으로서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내재되어있는 공간으로 재수용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작업은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자미로 다시 태어나는 그녀의 서술적 여정은 자신의 근원에 대한 신화적 상상력의 발현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로드 스스로가 『자미』에 부여한 “신화적 자서전”이라는 장르명 역시 여기서 기인한다. 그것은 실제로 로드의 어머니들이 레즈비언이었던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로드의 개인적 신화 쓰기의 과정이다. 워너(Michael Warner)는 특정한 장소로부터 흩어진 디아스포라들과 달리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분산된 멀리 떨어진 장소나 시간은 심지어 신화나 판타지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there is no remote place or time, not even in myth and fantasy, from which lesbians and gay men have dispersed; 202)고 서술한다. 로드는 카리아코의 유산을 활용하여 워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퀴어로서 자신의 고향을 신화적으로 일구어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집, 그리고 카리아코는 그녀에게 단지 지정학적인 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나를 집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정하고도 잔인한 여성들의 이미지들이다”(It is the images of women, kind and cruel, that lead me home; 3)라는 서문의 문구에서도 드러나듯 로드에게 집이란 그녀가 만난 사람들과 경험한 관계들을 통해 “되어가는”(becoming) 다단한 정체성들을 아우르는 존재론적인 개념이다. 카리아코는 자신의 다단한 정체성들이 무엇 하나 부정당하지 않는 상징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이미지로서 작용하고 있다.

정체성의 수용과 관련된 카리아코의 고향 이미지는 로드가 논의하는 “다름의 회당” 개념과도 이어진다. 로드는 자신을 구성하는 어떠한 정체성도 부정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데 소통을 시도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다름의 회당”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실제로 『자미』는 로드

가 어느 한 가지 특정한 정체성 집단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것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확립해온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로드는 특정한 정체성에, 심지어 자신의 과거 경험에도 안주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거처오며 타인과 관계를 맺은 공간들을 떠올리며 “바가텔에, 헌터 대학에, 할렘의 외곽에, 도서관에 진짜 나 자신의 조각들이 결부되어있고, 그것들이 자라고 있다”(At the Bag, at Hunter College, uptown in Harlem, at the library, there was a piece of the real me bound in each place, and growing; 226)고 서술한다. 그녀가 거처온 공간들, 만난 사람들, 그녀가 맺은 관계들, 특히 여성들과의 관계는 로드의 삶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며 그녀는 그 경험들을 모두 자신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소중히 여긴다. 나아가 그녀는 자신을 구성하는 경험을 나누는 다른 여성들, 해당 경험이 일어난 장소를 매 번 집으로 삼는다. 집에 대한 그녀의 사고관은 다음 문장에서 잘 드러난다. “이 장소의 외벽이 칠년 동안 나의 집이었다. 칠년은 사람의 몸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스스로를 갱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 시간동안 나의 삶은 점점 더 여성들의 가교이며 터전이 되어왔다. 자미.”(The casing of this place had been my home for seven years, the amount of time it takes for the human body to completely renew itself, cell by living cell. And in those years my life had been increasingly a bridge and a field of woman. *Zami*; 255) 로드는 그녀가 7년 동안 세 들어 산 뉴욕의 아파트가 자신의 집이었다고 말한다. 작가는 단순히 아파트가 아니라 “이 장소의 외벽”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역으로 그녀가 특정한 장소 자체에 대해서는 본질주의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장소를 감싸고 있는 외벽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교류한 여성들과의 관계야말로 그녀가 갖든 “집”인 것이다.

여기서 로드가 말하는 집은 추상적인 이상향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집은 그것을 유지 보수하며 그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노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로드는 7번가에 있는 그녀의 집을 생생한 시각적, 후각적 감각을 동원하여 묘사한다. “변기와 욕조 사이의 화장실 벽에는 쓰다 만 네 편의 시가 끼적여져 있었으며, 다른 것들은 창틀과 꽃무늬 리놀륨 바닥 아래의 마룻장에,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음식의 진한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There were

four half-finished poems scribbled on the bathroom wall between the toilet and the bathtub, others in the window jambs and the floorboards under the flowered linoleum, mixed up with the ghosts of rich food smells; 255) 집 여기저기에는 쓰다 만 시들이 흔적으로 남아있으며 공기 중에는 진한 음식 냄새가 떠다닌다. 미완성의 시들이 적혀있는 화장실의 타일은 흑인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직업을 연상시킨다. 그녀에게 집은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시로 대변되는 글쓰기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그것은 흰 종잇장이 아닌 타일과 창틀, 마룻바닥에 적혀 있으며 부엌에 남아있는 음식 냄새와 뒤섞인다. 그 안에서 로드와 그녀의 레즈비언 혹은 여성 친구들은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노동을 하고 서로와 심리적, 물질 지원을 나눈다. 이러한 연대야말로 그녀가 생활을 감당해내고 현실을 살아갈 힘을 준다고 로드는 서술한다(Their names, selves, faces feed me like corn before labor; 256). 이처럼 로드가 추구한 삶의 방식은 마치 카리아코에서 여성들이 함께 노동을 하듯,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여성들의 협업과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카리아코의 여성 공동 노동의 생활방식은 로드에게서 여성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드가 단순히 공동체 연대를 최고의 이상으로서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소수자들을 배격하는 당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아웃사이더들이 결성한 유대관계와, 그 안에서 개체성을 보존하고자 했던 개인들이 느껴야 했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에 따르면 “1950년대 빌리지에 있는 술집과 커피샵들은 그들이 어렵사리 얻은 그룹에 반하기를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단체와 그들 개인의 필요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비순응주의자들로 가득했다”(The bars and the coffee-shops and the streets of the Village in the 1950s were full of non-conformists who were deathly afraid of going against their hard-won group, and so eventually they were broken between the group and their individual needs; 226). 정상성에 반하는 자신의 면모들을 긍정하기 위해 모인 소수자들이 결성한 단체는 그 자체로 개인에게 또 다른 특징의 폭력을 휘두를 위험을 함께 지니고 있다. 특정한 소수성을 대표하는 단체에 의존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정의, 하나의 비좁은 개체화에 안착하는 것”(to settle for one easy

definition, one narrow individuation of self; 226)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층적인 소수자성을 지니고 있던 로드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공동체의 위험성이 더욱 명확하게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우리들의 자리는 바로 다름의 회당 그 자체였지 어떠한 하나의 특정한 다름이 제공하는 안도감에 있는 것이 아니”(our place was the very house of difference rather than the security of any one particular difference; 226)라는 깨달음에 다다른다. 흑인, 여성, 레즈비언이라는 다단한 삶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같은 소수자들과 연대하면서도 그렇게 소속되는 집단이 표방하는 고정된 정체성에 개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로드가 자아를 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중요하고도 귀한 깨달음이었다. 연대는 서로를 고정된 정체성 안으로 몰아넣지 않으면서도 공존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룩되는 다름의 회당은 심리적, 물질 토대를 공유하는 일상의 교류와 노동을 통해 유지되는 곳이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공동의 노동이라는 사건의 지반 위에서 다름의 회당은 언제, 어디서든 세워진다.

이상으로 『자미』에서 집(home)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신필드의 디아스포라/디아스포라 퀴어의 논의에서 집은 디아스포라에게 유일한 귀환의 대상으로, 디아스포라 퀴어에게는 이성애적인 질서가 지배적인 공간으로 파악되어왔다. 이러한 논의와 달리 로드는 자신의 유년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집의 의미를 새롭게 탐색하며, 자신의 퀴어 정체성의 기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집을 새로이 전유하고 있다. 로드는 카리아코, 그리고 모계의 계보로부터 레즈비어니즘의 유산을 신화적으로 상상하고 이를 정체성의 뿌리로 삼는다. 그리고 나아가 다양하며 유동적인 정체성이 인정받는 공간으로서 다름의 회당을 제시하는 한 편,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장이 단지 추상적인 이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노동과 협력을 통해서 성취되고 지탱되는 것임을 묘사하고 있다. 모계의 유산으로부터 자신의 뿌리를 탐색하면서 동시에 차이가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는 방식으로 로드는 집에 대한 그녀의 비전을 제시한다. 로드가 제시하는 집은 소속감을 주면서도(feeling at home) 반드시 일괄적이고 배타적인 장소성과 관련되어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개인이 만나고 관계 맺는 사람들과 그들이 겪는 경험을 통해서 공간에 깃들게 된다. 개인에게 정신적, 물질 지지를 제공하고 정체성을 벗어내는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바로 로드에게는 집이요 고향인 것이다. 연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은 모계사회인 카리아코의 긴 역사에서부터 50년대 뉴욕의 여성 연대에 이르기까지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다. 『자미』를 통해 작가는 오래된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내는(living the old in a new way; 255) 그녀의 삶의 궤적을 그리며 차이와 존중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인용문헌

- Lorde, Audre. *Zami: A New Spelling of My Name*. Crossing Press, 1982.
- Bolaki, Stella. “‘New Living the Old in a New Way’: Home and Queer Migrations in Audre Lorde’s *Zami*.” *Textual Practice*, vol. 25(4), 2011, 779-898.
- Brah, A. *Cartographies of Diaspora. Contesting Identit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 Fortier, Anne-Marie. “‘Coming Home’: Queer Migrations and Multiple Evocations of Hom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 1(1), 2011, 405-24.
- Sinfield, Alan. “Diaspora and hybridity: Queer Identities and the Ethnicity Model.” *Textual Practice*, vol. 10(2), 1996, 271-93.
- Smith, Barbara. “The Truth that Never Hurts: Black Lesbians in Fiction in the 1980s.” *Third World Women and the Politics of Feminism*, edited by Chandra Talpade Mohanty, Ann Russo, and Loudres Torres, Indiana UP, 1991, 101-32.
- Warner, Michael ed. “Introduction.” *Fear of a Queer Planet*, Minnesota UP, 1993, vii-xxxi.

ABSTRACT

A House-Building of a Manifold Minority: From Mother's House to the House of Difference

Kyungmin Bay

This paper examines “home” in Audrey Lorde’s *Zami* in regards to how it differs from the home in diasporian context and how she utilizes her Carriacouian heritage to add up a new dynamics in accomplishing home as a “house of difference.” Conventionally in the field of diaspora studies, home has been considered as a fixated spacial object that invokes nostalgia to diasporas. From queer theory’s perspective however, home has been widely considered a space of emergence for queer people where compulsory heterosexual regime prevails and thus inevitably expels the queer existence out of its boundary. In this sense, home for queer people is a nostalgic place where they have emerged from, and yet have never belonged to. For diasporas home is a faraway destination; for queer beings home is a neverland. Audrey Lorde on the other hand explores the concept of home through reconstructing memories from the past, which include not only her own childhood memories but also the memories of her mother who still retains a strong mental bond with her Carriacouian heritage. Lorde actively excavates and reinterprets the elements of lesbianism and female bonding from the Carriacouian culture of female community and labor, and utilizes it as the rediscovered origin of her various identities, such as her identity as a lesbian, a black and an immigrant. Biomythography, which is a term Lorde applies to her own work, in this sense refers to the search of her origin through her interpretation and reconstruction of her ma-

ternal background, which to the author is not just a geo-ethnic fact but also a space for myths and imagination. The ideal home for the author is thus not a fixated and heteronormative “place” but a “house of difference” where difference coexists and its form constantly shifts and “becomes” on the basis of its members and the life that they pursue. Heavily inspired by the community lifestyle of Carriacou as well as the contemporary lesbian solidarity Lorde proposes a new way of appreciating home by “living the old in the new way.”

Key Words diaspora, queer, lesbianism, Carriacou, black, immigrant, biomythography, house of difference, space